

“삼손이 가사에 가서”

❖ 사사기 16:1-3

- 1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 2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 3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빋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가사에서 생긴 일

삼손이 블레셋 사람 천 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고 그곳을 ‘턱뼈의 언덕’이라는 의미로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곧바로 삼손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위해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으로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후에 삼손이 ‘가사’로 갑니다. 가사는 블레셋 최남단에 위치한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영토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발로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으로 간 이유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생을 통해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삼손을 잡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잠들어 있을 삼손을 잡기 위해 삼손이 머문 기생의 집을 둘러 싸고 밤새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사의 성문짝과 기둥들과 빗장까지 뽑아 어깨에 매고 유다 땅 헤브론 앞 산 꼭대기에 갖다 버렸습니다.

성문은 그 성의 안전과 직결된 곳이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삼손은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가는 동안 적어도 6개의 블레셋 성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가사로부터 헤브론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60km입니다. 차로 가도 한 시간 가까이 걸릴 거리지요. 게다가 가사에서 헤브론으로 이어지는 길은 평지가 아니라 험한 산악지대입니다. 그 먼 거리를, 수십 명은 동원해야 겨우 들 수 있는 성문과 기둥을 혼자 어깨에 매고 산 꼭대기에 갖다 버리는 것은 엄청난 괴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나와 헤브론까지 가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성문과 기둥을 매고 달려오는 삼손을 보고는 기가 질려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

삼손이 멸절한 가사의 성문을 뽑아다가 멀리 떨어진 헤브론 앞 산 꼭대기에 갖다 버린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감히 나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힘 자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긴 유다 사람들에 대한 항의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뜬금 없이 힘 자랑을 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삼손이 지금 막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엔학고레에서 극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삼손에게서는 거룩한 나실인으로써의 정체성이나 사사로써의 사명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엔학고레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손은 엔학고레에서의 체험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에 더 대담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저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 성문을 뽑아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삼손이 블레셋의 모든 성문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 열린 성문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정복하라고 주신 힘으로 성문을 뽑아다 산꼭대기에 버리는 쓸데 없는 짓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활짝 열린 블레셋의 성문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3:4-10을 읽겠습니다.

❖ 열왕기상 3:4-10

4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6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지라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천 마리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으니,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장수나, 재물이나, 원수가 망하기를 구하지 않고 왕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는 두 여인에 대한 재판에서 잘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아기를 둘로 갈라서 여인들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했고 진짜 엄마는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애를 바탕으로 내린 지혜로운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기를 직접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모성애를 들어보긴 했겠지만 경험적으로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으로써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심정을 정확히 헤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에는 정말 자기가 말한대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궁중 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반역자들을 바로 처벌하지 않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당한 명분을 얻어서 효과적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다윗보다 훨씬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일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칭한 솔로몬을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원래 판단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판단력과 머리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중에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서 자기가 살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거대하고 화려한 왕궁을 지어야 했던 이유는 그의 명성이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예물과 사절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그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명성에 걸맞는 왕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많은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당시 왕의 결혼은 외교적인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앞을 다투어 솔로몬과 결혼동맹을 맺으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공주들이 가져온 우상들은 성전에 두어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습니다.

삼손의 힘과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같은 사명으로 부름 받은 종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각각 다른 은사들입니다. 삼손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삼손에게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한 무능한 종들이었습니다.

오징어게임

요즘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드라마에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의무적으로 봤습니다. 수백 명이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 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구슬치기’, ‘홀썩’, ‘오징어’와 같은 놀이를 합니다. 게임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죽고 살아 남은 사람들만 다음 게임을 해서 또 탈락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만 막대한 상금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드라마를 끝까지 보긴 했는데 몰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평론가들은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이유가 빈부 간의 격차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인 소재라는 것

은 그만큼 진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지나치게 두드러져서 보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나 명문대 출신 증권회사 직원 등 멸절한 어른들이 예전에 어린 아이들이 하던 놀이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몸과 머리를 총동원해서 사력을 다한다는 것이 너무 현실성이 없게 여겨졌습니다. ‘저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아이패드로 봤습니다. 제 아이패드는 화면도 크고 용량도 넉넉한 비싼 기기입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구입한 이유는 어디에서나 책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학서적이거나 주석은 부피가 커서 보관하기도 힘들고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던 책을 다 파일로 만들어서 이 안에 넣고, 두고 볼 책 외에는 다 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입한 전자책과 그 외에 다양한 경로로 구입하거나 모은 책들까지, 약 2천 여권의 책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이패드를 구입한 원래의 용도대로 책을 많이 읽고 있느냐, 그럴 리가 없지요. 책은 원래 읽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와 특별히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 외에는 안 봅니다. 그 대신 이 패드는 오징어게임을 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야구 중계도 이 패드를 이용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책 수천 권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걸로 오징어게임을 보는 저나, 멸절한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서 흠잡을 하는 오징어게임 참가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삼손의 힘이나 솔로몬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값지고 귀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힘으로 성문을 뚫아 산꼭대기에 버린 삼손이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지혜로 많은 아내를 얻어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은사

에베소서 4:7-12을 읽겠습니다.

❖ 에베소서 4:7-12

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듯, 교회를 위해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직분에 맞는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좁은 의미의 개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교회를 뜻합니다.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집합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는 별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솔로몬이 살았다면 그다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필요한 것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 시대에 삼손이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유명인사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에 특별한 대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삼손이 가진 힘이나 솔로몬이 가진 특별한 지혜는 없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사는 시대와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시기나 환경에 따라 세속적으로 조금더 가치있게 여기는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은사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필요한 은사를 이미 가졌습니다. 문제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의도에 맞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주일 예배 입례송, 폐회송으로 평소에 잘 안 부르던 찬양들을 선택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감한 시도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악보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스크린에 찬양 가사만 띄웠는데 이제는 잘 만들어진 악보를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악보 파워포인트는 대부분 한 사람의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그분이 만든 악보를 사용합니다.

그분의 블로그에는 찬송가 전곡을 포함해서 최근에 발표된 곡들까지 거의 모든 찬양곡들의 악보 파워포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필요로한 악보를 찾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곡만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비공개처리 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모두 자유롭게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건 그분이 한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술과 더불어서 시간, 노력, 열정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힘겹게 만들어낸 결과물을 무료로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일 자체가 그분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각 교회의 예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쁘기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의도대로 사용한다는 기쁨이 현실적인 보상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느헤미야 8:10을 읽겠습니다.

❖ 느헤미야 8:10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수한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벽 재건에 성공합니다. 그후에 에스라가 모든 유다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불러 모아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조

상들의 죄와, 한때 정복하고 다스렸던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와 성일이니 슬퍼하지도 근심하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이웃에게도 나눠주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조상들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은 현실이 비참하더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유다의 귀환과 성전, 성벽 건축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솔로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들의 세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이 이뤄질 것을 확신함으로 지금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경악할만한 기술이나 지식이나 재물, 외모, 예술적인 능력, 인생의 경험, 학벌이나 인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삼손이 한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을 뚫아 어깨에 매고 질주하는 것과 같은 쓸데 없는 힘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부와 명예를 얻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명성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삼손과 같은 괴력도 아니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신 의도에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가지 일들로 지쳐있다면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같은 비참한 상황이라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녀삼으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신 의도대로 은사와 건강과 지혜와 재물과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볼 질문들

1.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삼손이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힘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